

종합·해설

‘삼성비자금’ 특검 대선 쟁점 급부상

범여권, ‘부패 vs 반부패’ 구도 포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가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3자회담을 통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하기로 하고 정기국회 회기인 23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회동에서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옹호 못한 관행을 이번엔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투명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삼성비자금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상황으로 본다”고, 문 후보도 “삼성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것은 자연스럽다”고 각각 말했다.

대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3인이 머리를 맞댄 때는 반부패 전선을 형성, 이번 대선은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치러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을 계기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자금 연루 사실과 한나라당의 ‘차떼기’ 오명을 상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昌 대선자금·한나라 ‘차떼기’ 부각한 ‘조건부 수용’... 처리 진통 예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이 14일 3당 공동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원내 제1정당인 대통합신당(140

명)과 민주노동당(9명), 창조한국당(1명), 그리고 특검법에 긍정적인 민주당(8명) 의석수를 합치면 전체 의석수(299명) 대비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특검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법사위 구성도 대통합신당 8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으로 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 대상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상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범여권의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수사 범위가 ‘꽤 값 검사’에 한정된다면 굳이 특검을 할 필요없이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며 “삼성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2002년 대선과 관련이 있고 노 대통령 당선자금 및 당선축하금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昌, 대구서 계란 세례 받아

서문시장 방문중 이마에 맞아 투척 30대 “경선 안거쳐 격분”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13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다 중 계란에 이마를 맞는 ‘봉변’을 당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15분께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50여m 떨어진 J빌딩 내 상가를 걸어가던 중 모신용대출입제 직원 이모(32)씨가 던진 계란에 맞았다.

이씨가 던진 계란은 이 후보 바로 뒤편에 있던 유리문에 맞아 파편이 튀었고, 이 파편이 이 후보의 왼쪽 이마에 묻은 것. 이 후보는 다른 상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이 후보 경호팀은 후보를 옷가지로 덮어싸운 뒤 인근 상가연합 사무실로 데려가 신변을 보호했고, 나머지 경호팀은 계란을 던진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현지 경찰에 인계했다.

이 후보는 상가연합 사무실에서 10여분간 안정을 취한 뒤 모자를 쓴 채로 사무실을 나와 다시 시장을 5분여간 걸어들어 시민들을 만났고, 이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대구중부경찰에 연행된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제출하며 실망이 컸다”고 진술했다.

신용대출업 특성상 서문시장을 거의 매일 찾고 있다는 이씨는 “영업상 서문시장을 찾아가다가 이 후보가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듣고 있던 계란 4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은 아니며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이씨의 말을 바탕으로 당일 여부를 비롯해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검찰과 협의해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맞은 후 급히 모자를 쓰고 시장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부정당지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 법사위는 13일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른바 ‘떡값 검사 리스트’에 임 후보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임 후보자가 정의구현사제단 측이 발표한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돼있는 것에 대한 진상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떡값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 후보는 또 “자진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 없는 주장에 사퇴한다면 검찰이나 전체 국가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지작’ 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에 논란이 됐다.

◇삼성 비자금=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6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을 고발한 지 일 주일이 됐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

“삼성 비자금 특별 수사팀 꾸려야 2001 에스원 주식 매입 의혹 제기”

사를 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떡값 의혹은 물론 삼성 비자금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당선축하금으로 사용됐는지까지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BBK 주가지작=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BBK가 지난 2001년 등기를 취소되기 전까지 2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들이 김경준씨의 말만 믿고 투

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 후보를 믿고 투자한 돈이고, 김씨가 흘려간 돈이 결국 국민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미 검찰과 금감원이 이 후보와 BBK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도 올 6월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에스원 주식 의혹=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삼성)이 후보자를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시점인) 지난 2001년 에스원 주식 450주를 매입했다가 3년 후인 2004년 공무원의 주식보유가 논란이 되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폭로’ 김용철 변호사 “영산강 운하는 고비용 저효율 사업”

삼성, 명예훼손 고소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상임의장 주장

전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대선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구난 대검 중수부장, 이중백 국가청렴위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떡값 검사’로 지목한 데 대해 삼성그룹 측 관계자들이 13일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제단이 검찰 전·현직 수뇌부 3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위원장의 관리 담당자로 지목한 제진훈 재일도직 사장과 임 내정자를 관리했다고 밝힌 이후로 구조조정본부인 사립발전(전 에스원 사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삼성그룹 법무팀 관계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영산강 운하 건설 공약은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 토목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상임의장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산강-낙동강 유역개발과 수질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영산강 운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장은 “영산강 운하 건설은 대부분 구간이 수위조절, 배수관문 등이 건설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이 후보가 사업을 2~3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지역 물류 상

황이 광주~무안 고속도로, KTX 등의 개통으로 육상 교통 위주로 개편돼 운하를 통한 물류 운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비판했다. 임 의장은 또 “운하를 건설하려면 배가 다닐 만큼 풍부한 수량을 갖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심을 깊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 100여개 환경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비만 1조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이 후보가 사업을 2~3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지역 물류 상

산행안내 11월 15일(목) ▲광주광역시 환경운동연합 후원 1)월15일(목) 08시 대인관정(현)현천원출발 T.011-627-6633 2)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5일(목) 07시30분 영산강 유역(현)현천원출발 T.011 615-2279 3)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5일(목)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9601-8258, 011-441-8845 4)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5일(목)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29-2678, 011-601-8288 11월 16일(금)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6일(금) 07시30분 백운리(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17일(토)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7일(토)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18일(일)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8일(일)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19일(월)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19일(월)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0일(화)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0일(화)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전국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11월 20일(화)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0일(화)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1일(수)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1일(수)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2일(목)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2일(목)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3일(금)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3일(금)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4일(토)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4일(토)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5일(일)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5일(일)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전국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11월 20일(화)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0일(화)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1일(수)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1일(수)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2일(목)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2일(목)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3일(금)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3일(금)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4일(토)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4일(토)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11월 25일(일) ▲광주광역시 환경 운동연합 11월25일(일) 08시 광주역(현)현천원출발 T.011-631-3977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222-4560 7·9급 공무원 개강 12월3일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